

게임사, 메타버스 구축 속도전... VR 콘텐츠 시장 공략

넷마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설립
카카오와 맞손... 가상현실 IP 제공
'아이돌 캐릭터 매니지먼트' 지원

컴투스, VR전담 '컴투스로카' 설립
위지웍스튜디오와 본격적 협력
콘텐츠 기업에 700억 투자 IP확보

netmarble

com2us
컴투스

국내 게임사들이 VR(가상현실) 기술을 확보하며 가상현실 콘텐츠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게임사들이 자체 VR 기술을 개발하거나 전문사 인수를 통해 차세대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두고 게임사들의 진출 속도가 한층 빨라진 모습이다.

◆넷마블, 카카오 손잡고 '가상세계' 구축 속도

넷마블은 일찍이 자회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VR 구축에 뛰어든 바 있다. 넷마블은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설립 후 가상 아이돌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가상현실 속에서 활약할 수 있는 캐릭터 제작에 집중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카카오가 메타버스엔터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해 관심을 모았다. 카카오는 메타버스엔터를 통해 제작되는 아이돌 캐릭터의 매니지먼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넷마블이 구축하는 가상 세계에 카카오의 IP가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웹소설, 웹툰 등 수많은 IP를 보유한 대표적인 IP 기업이다. 넷마블이 구축하는 가상현실 플랫폼에 카카오의 IP가 결합되면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넷마블에프앤씨가 가진 최고의 캐릭터 제작 능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만나 새로운 세계인 메타버스에 또 다른 파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메타 아이돌을 시작으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컴투스, VR 자회사 설립

컴투스는 최근 VR 전환을 전담할 자회사 '컴투스로카'를 설립하고 관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컴투스로카는 컴투스가 보유한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

의 VR 게임과 콘텐츠로 제작하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이를 메타버스 콘텐츠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관통하는 메가 IP 창출을 위한 다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8월 인수한 메타버스 전문사 위지웍스튜디오와도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위지웍스튜디오는 넷플릭스 '승리호'를 비롯해 다양한 영화·드라마를 만들어 온 회사다.

또 웹툰·웹소설 기업 '엠스토리허브', 웹드라마 전문사 '와이닷미디어'와 '미디어엔', 웹툰제작사 '정글스튜디오' 등 콘텐츠 기업에 약 700억원을 투자하며 IP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컴투스는 이를 기반으로 텍스트, 영상, 게임, 금융, 가상자산 등을 연결하는 트랜스 미디어 전략을 바탕으로 VR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컴투스 관계자는 "이번 VR 스튜디오

설립은 글로벌 VR 시장을 넘어 향후 메타버스 산업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새롭게 창출하는 IP를 미래 콘텐츠 트렌드와 접목하며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게임사들이 VR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VR 게임은 몇 년 전까지 게임 수요가 낮았는데 최근에 놀라게 변했다"며,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최대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혁신하지 못하면 미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車업계, 판매량 '뚝'... 르노삼성만 '급증'

완성차 업계 10월 판매실적 공개

현대차·기아 각각 21%·19% 감소
쌍용차·한국지엠 판매 절반이상 ↓
르노삼성, 총 1만1627대로 54% ↑

국내 완성차 업계가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으로 감소하는 등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0월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한 30만 7039대를 판매했다. 내수는 5만 7813대, 해외는 24만 9226대로 각각 12.0%, 22.5% 감소했다. 내수 시장에서 세단과 SUV는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했다. 세단은 그랜저 9448대, 쏘나타 6136대, 아반떼 3368대 등 총 1만 8978대가 팔렸다. 레크리에이션차량(RV)은 팰리세이드 2582대, 싼타페 3494대, 투싼 2911대, 아이오닉 53783대, 캐스퍼 2506대 등 총 1만 8194대가 팔렸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6119대, GV70 2892대, GV80 1828대 등 총 1만 1528대가 팔렸다.

기아는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에서 내수 3만 7837대, 해외 18만 35대 등 전

년 동기 대비 18.9% 감소한 21만 7872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내수는 21.2%, 해외는 18.4% 감소한 수치다.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3만 174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했으며 셀토스가 2만 7468대, K3(포르테)가 1만 6627대로 뒤를 이었다.

쌍용차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글로벌 4779대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53.1% 감소했다. 현재 쌍용차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및 수출 포함 적체 물량만 1만 2000대에 달하는 등 적체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지엠은 국내외 시장에서 전년 대비 78% 이상 줄어든 총 6875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내수와 수출 판매량은 2493대, 4382대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7%, 82% 줄어들었다.

쉐보레스파르카가 10월 내수 시장에서 총 1074대 판매된 가운데, 쉐보레 트레버스는 같은 기간 총 310대 판매돼 전년 동월 301대 대비 3.0% 증가세를 기록했다. 쉐보레 트레버스는 압도적인 차체 사이즈와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으로 대형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두

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지난 9월 총 255대가 신규 등록되며 3개월 연속 국내 수입 대형 SUV 시장 내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반면 르노삼성은 국내 완성차 업계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은 국내 5002대, 수출 6625대 등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한 1만 1627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내수 판매는 30% 감소했으나, 수출은 1590.1% 증가한 수치다.

10월 전체 판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차량은 XM3다. 내수 792대, 수출 4819대를 더해 총 5611대가 판매했다. 지난달 대비 46.9% 줄었지만 여전히 해외서 인기를 얻으며 10월 판매 실적을 견인했다. 글로벌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 공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수출 차량에 한해 공급이 안정됐지만 향후에는 국내 판매용 물량도 안정될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부품 공급 차질과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생산 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 지연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원료개발 올인

현대제철, 브라질 '발레'와 맞손
2030년 탄소배출 20% 감축 목표

현대제철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원료 개발을 위해 세계 최대 광산업체 중 하나인 브라질 발레와 손을 잡았다.

현대제철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레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응 및 저탄소 원료 개발 등 상호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최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사회적으로 탄소배출 감축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사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저탄소 원료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양사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면서 이뤄졌다.

현대제철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철강 수요업계에서도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강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발레 역시 파리협약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 도출 및 저탄소 철원 솔루션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협력하고 이에 대한 논의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MOU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향후 저탄소 대체재로 기대하고 있는 철광석 브리켓(Iron Ore Briquettes)의 타당성 검토이다. 철광석 브리켓이란 약 200도의 저온에서 생산된 저탄소 철원으로 고로의 소결, 광광 및 펠렛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양성운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전경.

SKC,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사업 본격화

꽃기업 넥시온에 3300만 달러 투자

SKC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2차전지 차세대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본격화한다. 실리콘 음극재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성능을 개선하는 소재로, 상용화 초기 단계다. SKC는 실리콘 음극재 사업 등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향후 5년 성장 전략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을 가속화한다. SKC는 1일 이사회를 열고 사모펀드 운용사 SJL파트너스, BNW인베스트

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영국의 실리콘 음극재 기술 기업 넥시온에 3300만 달러를 투자키로 의결했다. 3사의 투자 규모는 8000만 달러다. SKC-BNW 컨소시엄이 51%를 투자하고 49%는 SJL 파트너스가 투자자를 모집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SKC는 컨소시엄의 주사업자로, 기업결합신고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넥시온의 지분 일부와 실리콘-탄소 복합체 음극재 기술 사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SKC는 지난 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소재 글라스기판의 사업화를 결정했고, 이어 2차전지용 차세대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 진출도 구체화하는 등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 전망도 밝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4억달러였던 실리콘음극재 시장 규모는 2025년 29억달러, 2030년 146억달러 규모로 성장한다. 음극 내 실리콘 함량에 따라 저함량(15% 이내), 고품량(15% 이상)으로 나뉘는데 현재는 저함량 제품의 상용화 초기 단계다. SKC는 오랜 기간 쌓아온 글로벌 양산 및 마케팅 역량을 넥시온의 차별적인 기술력과 결합해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아우디 Q5 스포트백, 고성능 모델로 거듭

'SQ5 스포트백 TFSI' 출시

아우디 Q5 스포트백도 고성능 모델로 거듭난다.

아우디코리아는 4일 더 뉴 아우디 SQ5 스포트백 TFSI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가격은 9420만 3000원이다.

이 모델은 Q5 스포트백의 고성능 모델로, 넉넉한 공간에 강력한 성능을 더했다. 3리터 V6 기술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에 8단 팁트론닉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출력 354마력을 낸다.

아울러 콰트로 시스템과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에어댐프 에어 서스펜션 등으로 승차감과 성능을 극대화했다.

디자인은 스포트백에 S모델만의 스포티한 감성을 더했다.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마감한 사이드미러와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등으로 역동성도 강조했다.

실내에는 패들 시프트와 유광 블랙 센터 콘솔, 나파 가죽 S 스포츠 시트 등으로 편의성과 프리미엄 감성을 더 높였다.

/김재용 기자 juk@